

**UN 중남미·카리브 위원회(ECLAC)의
『중남미 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』 주요 내용**

- UN의 중남미·카리브 경제위원회(U.N.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: ECLAC)는 8.1자로 동 지역의 2002년도 경제현황 및 전망과 관련한 보고서("Current Conditions and Outlook: 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1-2002")를 발간
-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도 중남미·카리브 지역의 경제는 0.8%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, 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수준인 9%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- 보고서는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경기둔화세가 2002년 1/4분기에도 지속되어 GDP가 3% 이상 하락하는 등 더욱 악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, 이러한 경기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Argentina 경제위기를 꼽고 있음.
- 또한, 계속되는 경기침체, 높은 실업률, 사회지출 감소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, 향후 중남미 각국 정부들의 개혁정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ECLAC는 전망하고 있음.
- ECLAC는 동 지역의 경기회복은 전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고,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2003년 동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.5%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
- ECLAC는 Argentina를 제외하면 동 지역 경제는 1% 내외의 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.
- 보고서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,
 - 첫번째 그룹에 속하는 Argentina, Paraguay, Uruguay 및 Venezuela의 경우 2002년도 중 GDP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, Argentina의 경우 1999년 시작된 경기후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GDP도 13.5%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 - 한편 Bolivia, Chile, Colombia, Ecuador, Mexico 및 Peru 등으로 구성된 두 번째 그룹국가들의 경우에는 0~3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 다음은 ECLAC가 예측한 각국의 성장 전망치임.
 - ✓ Brazil : 1/4분기 중 1% 이내의 GDP 하락이 예상
 - ✓ Chile : 내수부진 및 투자감소 등으로 2.5%의 성장 전망치 조정이 필요
 - ✓ Mexico : 1/4분기 중 2% GDP 하락 이후 대미수출 증가에 의한 경기반전이 예상
 - ✓ Peru : 3% 성장
 - ✓ Colombia : 1% 성장
 - ✓ Ecuador : 2001년도의 5.6% 성장에 이어 2.5%의 성장이 전망됨.
 - ✓ Bolivia : 1.5% 성장
- 이밖에도 보고서는 Central America의 경우 성장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Caribbean 국가들의 경우 국가별로 성장률에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동 지역의 지역평균 성장률을 1% 내외로 예측하고 있음.

(자료원: 워싱턴 주재원)

문의 : 국별조사실 책임연구원 김영석 (☎3779-6653)
 전문연구원 최성규 (☎3779-6665)